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문-참조9)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은 성남시가 974억여 원을 출연한 공기업으로서 2020년도 예산만 해도 1,314억여 원을 집행하고 관련 직원은 900여 명에 이르는 성남시 최대 공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윤정수 사장 이전에는 공사 운영이 큰 대과 없이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원들의 비위 발생 등으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없었으나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는 예전에 없었던 각종 비위 사실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시민들의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법에 의거 시민의 혈세인 세금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의 공기업이 설립 취지에 맞도록 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의 행함이 없이 오히려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상화와 공사 직원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에서 이 같은 공사 운영에 대해 잘못을 지적함에도 이의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정수 사장을 은수미 시장은 해임하라.

하나,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 본청의 특별직무감사에 의한 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는 등 감사 결과를 정면 부정하고 있는 윤정수 사장을 해임하라.

하나, 직원 비위 사실에 대해 최고 관리자로서 조치를 간과하고 이를 비호·묵인하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윤정수 사장을 은수미 시장은 해임하라.

2020년 10월 23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